도심포교 10년, 이웃사랑 실천도량 되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전경. 올해로 창건 10주년을 맞은 국제선센터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국제선센터 11월 15일 개원 10주년 맞아

불교 · 전통문화 홍보대표 도량
10년에 1만 3천여 외국인 방문
도심 사찰로 사회 공헌에 앞장
이주 · 탈북민 법회 · 휴식제공
자살예방 등 시대의 아픔 치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세운 서울 서남부 포교거점도량인 서울 국제선센터가 11월 15일 오전 11시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센터 2층 큰법당서 열리는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육법공양과 헌화 등 불교의식과 함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와 주지 법원 스님의 봉행사, 축하떡 커팅, 사부대중이 함께 보현행원 합송 및 양천구청에 자비쌀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0년 11월 15일 개원한 국제선센터는 현재 '황룡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도심 한가운데 지하 3층, 지상 7층의 장엄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지금의 국제선센터가 있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90년 종교부지를 확보한 조계사 신도들의 원력이 밑바탕이 됐지만 불교계에서도 흔치 않는 대형불사였기에 불사부터 운영 안정화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10년 간 노력 끝에 현재는 서울 서남권 기도와 포교 중심도량이자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대표사찰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특히 지역 주민은 물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국제선센터 금차선원(今此禪院)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선수행을 하는 선원으로 특화돼 운영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전문화된 수행 지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또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종과 국적이 다른 내 ·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선센터 지하에 위치한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는 외국인 초청 사찰음식 교육과 지역주민 강좌 등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국제선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1만3천여 명, 내국인은 3만8천여 명에 달하며 국제적인 운영으로 최근에는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로부터 마이스 사업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 '유니크 베뉴(Unique Vanue)'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제선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새터민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며 모두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어우러지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3년 10월부터는 매달 1차례씩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회도 열고 있으며 이주민 250만 시대를 맞아 2014년 베트남 이주민 불자회에 이어 2017년에는 방글라데시 불자회 발족도 뒷받침했다.

더 나아가 국제선센터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연기사상의 가르침대로 사회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에게 회향하여 사회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명절때마다 국제선센터가 진행하는 새터민 합동차례와 위로행사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불자대중과 함께 보내며 그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이탈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제선센터 청소년 봉사단(Prajna Youth Suppoter's Organization, 이하 PYSO)을 구성하고 청년불자들의 사회공헌도 이끌고 있다. PYSO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불자들의 의료상담 및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한다.

또 최근 사찰 본연으로서의 기도도량 역할도 강화해가고 있다. 큰법당 대적광전에서는 기도수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교대학의 기본 · 전문과정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불자로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 사찰과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천도재, 자살방지 불살생 법회와 같이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전법포교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은 "종단의 높은 관심 속에 문을 연 국제선센터는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기도와 포교 거점 도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도 수행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충족 기대에 부응하고, 훌륭한 불교문화유산이 새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원 10주년을 맞아 전국의 사찰과 폐사지 등의 마애불을 한자리에 모은 사진전 '마애불 천년의 미소'도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제4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붓다는 맨발로 세상을 유행하며 대자유의 삶을 몸소 실천해 증명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화엄·유식·법화·정토·밀교·선, 여러 이름으로 집약되어 전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본에 대한 의문을 참구하다 자성발로한 대행선사는 생활을 떠나 따로 불법을 구하지 말라 하였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라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활과 불법이 둘 아닌 도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붓다가 가리킨 대자유의 길을 여섯 갈래로 고찰하는 대행선연구원의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

■ 일시 : 2020. 11. 21(토) 10:00 - 17:1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1부 / 개회식(10:00 ~ 10:30)
· 개회식

2부 / 오전 학술발표(10:40 ~ 12:00)
좌장 : 차차석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
· 발표: 이병욱교수(고려대)
· 논제: 『법화경』에서 바라본 대행 선사상
· 논평: 이기운교수(동국대)

· 발표: 조준호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
· 논제: 정토사상의 본질과 대행스님의 정토관
· 논평: 문을식교수(동국대)

2020년 11월 21일(토)
(10:00 ~ 17:10)
You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3부 / 오후 학술발표(13:00 ~ 15:50)
좌장 : 안성두교수(서울대)
· 발표: 안환기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 논제: 유식사상과 대행선
–'자성신'과 '한마음'을 중심으로–
· 논평: 김성철교수(금강대)

· 발표: 정성준교수(위덕대)
· 논제: 대행선과 총지선의 성립배경 고찰
–『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
· 논평: 김영덕교수(위덕대)

좌장 : 최유진교수(경남대)
· 발표: 김방룡교수(충남대)
· 논제: 조사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행의 선사상
· 논평: 혜원스님(동국대)

· 발표: 권탄준교수(대행선연구원 원장)
· 논제: 화엄사상과 대행선사상
· 논평: 박보람교수(충북대)

토론광장(16:00 ~ 17:00)
좌장 : 김용표교수

· 폐회식(17:00 ~ 17:10)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Tel : 031)470-3276, 3277 E-mail : ds7788@hanmaum.org

백용성 창립 '대각교' 의식집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11월 6일 등록예고
한글 의식 수록… 가치 높아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대각교의식〉.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 스님이 창립한 '대각교'의 의식집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을 비롯한 전남대 용봉관, 경남도립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군산 둔율동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은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과 〈독립신문〉 상해판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 문화재로 등록예고된 〈대각교의식〉은 백용성 스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하고 저술한 불교의식집이다. 의식집에는 일제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예불 · 향례 · 혼례 · 상례 등 각종 의식들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여 정리됐고, 왕생가 · 권세가 등 찬불가 7편이 수록돼 있다.

문화재청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해 일제강점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하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 · 문화적 자료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대각교의식〉 등 등록예고된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임 國博 관장에 민병찬 경주박물관장

불교조각 전문가… '고려불화대전' 기획도



국립중앙박물관 신임 관장에 불교조각 전문가인 민병찬 국립경주박물관장〈사진〉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11월 1일 12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관장을 임명했다. 민병찬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불교조각사를 전공한 불교미술 전문가다.

민 신임 관장은 1989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로 입사한 이래, 2018년까지 전시과장 · 연구기획부장 · 학예연구실장 등 박물관 내 주요 실무직책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활동했다.

민 신임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재직 시절 '고려불화대전' '고대불교조각대전' '한 · 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등의 전시를 기획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초기 불교미술 연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여래좌상 연구' '반가사유상의 성립과 전개' 등이 있으며, 저서로 〈불교조각〉 1 · 2가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가 2020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 평가에서 '우수등재학술지'로 재인증됐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학연구〉는 앞으로 5년간 '우수등재학술지'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불교학연구회는 "이번 재인증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우수학술단체로 다시 우뚝 서게 됐다"면서 "한국불교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 봄을 기점으로 '스코퍼스(SCOPUS)'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코퍼스(Scopus)'는 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가 2004년에 만든 전 세계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다.

불교학연구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불교학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